

<특집: 호주/뉴질랜드 축산>

(제1편) 호주 축산물 수급 동향과 전망

허 덕*

김수연**

1. 서론

호주가 곡물 생산 대국이기도 하지만, 축산 대국이라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호주에서 축산이란 주로 소(牛) 산업이다. 여기에서 소 산업이란 고기를 목적으로 하는 육우산업과 우유 및 유제품을 목적으로 하는 낙농을 주로 일컫는다.

호주가 세계의 축산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 않다. 하지만, 호주 국내 사정으로 인해 축산물 생산량이나 수출량의 변동이 심하다. 여기 말하는 국내 사정의 대부분은 기상조건에 의한 생산 변동이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특히 2008년 이후 2020년 2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뭄¹⁾과 산불²⁾ 그리고 홍수³⁾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해외곡물시장 동향 책임자 겸 편집인, huhduk@krei.re.kr

** KREI 연구원, 축산관측 담당자, sykim0722@krei.re.kr

1) 2018년도 호주의 가뭄은 400년만의 가뭄이라고 일컬을 만큼 심각했으며, 2019년도에도 가뭄이 계속 이어졌다. 2018년도 호주 가뭄은 호주 동부를 중심으로 발생하여, 목초 생육악화에 따라 낙농가들이 사육규모를 축소하는 움직임이 강하고, 도축되는 암소 마리수가 증가함에 따라 생산량 감소폭이 확대되었다(출처: '호주, 가뭄 영향으로 7월 생산량 전년 동월 대비 4.2% 감소',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축산의 정보' 2018년 11월호).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 2월 10일 현재에는 동부지역 최악의 홍수로 가뭄에 이은 산불 또는 들불 확산을 진정시키는 결과를 낳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출처: 한국경제신문 2020년 2월 10일자 기사, '호주, 산불 가니 홍수 피해...12만 가구 정전'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0021028057>)

2) 언론에서는 호주 '산불'로 자주 나오지만, 실제적으로는 들불과 산불 모두 해당한다.

3) 2011년도 호주에서는 최악의 홍수 피해를 겪었으며, 2019년도에 이어 2020년 2월 현재에 이르기까지 홍수의 피해도 적지 않다. 2020년 2월 8일에도 뉴사우스웨일즈주를 중심으로 한 호주 동부에서 홍수가 다시 발생하였다. 이 홍수도 22년 만의 최악 폭우로 홍수피해로 고심하고 있는 호주 시드니에 물이 불어나고, 시드니 북부에 위치한 나라빈 라군(Lagoon·석호)에서는 불어난 물을 따라 석호 안으로 들어온 듯한 상어가 목격되어 주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시드니는 2020년 2월 8일(현지시간)부터 주말 이틀 동안 400mm의 비가 쏟아졌다. 이는 보통 2달 동안 내리는 비의 양으로 2011년 최악의 홍수보다 크고, 1998년 이후 22년 만에 내린 최악의 폭우로 기록되었다.(출처: 나우뉴스 2020년 2월 8일자 기사, '최악 홍수, 시드니서 바다에서 떠밀려온 '상어' 포착', <https://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210601002>)

원래 축산업은 경중에 비해 기상조건의 변동에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상조건의 영향은 축산업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보다는 오히려 기상조건의 영향을 가축의 먹이가 되는 곡물을 통해 나타나는 간접적인 영향이 더 클 것이다.

지난 2019년 3월에는 호주 수도 캔버라에서 호주농업자원경제과학국(ABARES)⁴⁾ 주최로 호주의 생산자가 최근의 뉴사우스 웨일스(NSW)주 가뭄과 퀸즈랜드(QLD)주 홍수 피해에서 어떻게 벗어나, ‘향후 10년간 1,000억 호주 달러 규모(8조 1,000억 엔=85조 500억 원)의 산업’이라는 목표⁵⁾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성장방법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 관해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이 글에서는 호주가 2018년도 이후 2020년 초반까지 겪었던 가뭄과 산불 그리고 이어진 심각한 홍수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서⁶⁾, 이러한 기후적 영향이 호주의 축산부문에 어떠한 영향이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⁷⁾.

다만, 이 글에서는 아직 호주 산불 관련 피해 상황이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은 사항이어서, 우선은 가뭄(旱魃)과 홍수의 영향에 국한하여 축산물의 수급 동향과 전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⁸⁾. 특히, 현재 입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2019년 3월 당시 논의되었던 주제 중 호주의 쇠고기, 우유, 유제품에 대해 향후 5년간의 수급전망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본다⁹⁾. 이어 호주의 축산업 회복을 위해 수립한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다루어 본다.

이 글 중 특히 특별히 언급이 없는 한, 호주의 연도는 7월~이듬해 6월이며 환율은 1호주 달러=850.5원(2019년 3월 말일 TTS-달러 환율 80.64엔=850.5원¹⁰⁾), 1 미국 달러=1,176원(2019년 3월 말일 TTS-달러 환율 111.99엔=1,176원)을 적용하였다. 또한, 각 주의 약칭에 대해서는 <그림 1>과 같이 표기

4) 농업 수자원부(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Water Resources)조직이며, 농축산물의 수급전망과 생산자 경영동향 등 정보를 수집, 분석, 공표하고 있다.

5) ABARES 사무국장인 스티브 해트 필드 도트 박사의 발언을 그대로 옮긴 것임. 여기서 말하는 목표는 전국농민연맹(National Farmers' Federation)이 ‘2030년까지 호주 농축산업을 1,000억 호주 달러 규모의 산업’이란 목표를 가리키며, 호주 정부는 이를 지지하고 있다.

6) 호주의 기상상황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는 허 덕, 김태련, ‘호주 쇠고기 생산·수출 동향과 전망’, 「해외곡물시장동향」 2020년 2호(2020년 4월호)를 참조 바란다.

7) 호주 육우산업에 한정하여 보다 구체적으로는 허 덕, 김태련, ‘호주 쇠고기 생산·수출 동향과 전망’, 「해외곡물시장동향」 2020년 2호(2020년 4월호)를 참조 바란다.

8) 호주 산불의 영향에 대해서는 정보가 입수 되는대로 원고를 작성하여 본 지에 게재하고자 한다.

9) 이 원고에는 2019년 3월 이후 발생한 가뭄이나 산불 그리고 홍수의 영향을 감안하지 못한 상황에서 동향과 전망임을 밝혀둔다. 2019년 3월 이후의 영향에 대해서도 정보가 입수되는 대로 원고를 작성하여 본지에 게재하고자 한다.

10) 원/엔 환율은 10.5원=1엔을 적용하였다.

한다. 또한 ABARES의 전망은 통상의 기상 조건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림 1. 호주의 행정구분



2. 호주의 최근 기상상황

본격적으로 축산물 수급 동향과 향후 전망을 하기에 앞서, 최근 호주의 기상상황에 대해 잠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¹⁾.

2019년 11월 중순에는 호주의 밀 벨트 거의 전체가 건조한 날씨여서 밀, 보리, 캐놀라의 작황상태에 좋았다. 건조한 날씨가 성숙 중인 동계작물 품질 유지에 도움이 된 반면, 가뭄으로 황폐해진 동호주지역에서는 면화와 수수 작황 전망이 계속적으로 좋지 않았다. 게다가 뉴사우스웨일즈(NSW)와 퀸즈랜드(QLD) 남부에서 산불이 번져 농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알려졌다. 건조한 날씨와 가뭄이 요인일 것이다.

당시의 평균 기온을 살펴보면, 동호주에서는 평년 수준이었지만, 남호주(SA주)

11) 호주의 최근 기상상황에 대해서는 본 지 허 덕 외, '주요 곡물 생산국의 농업기상 현황', 『해외곡물 시장동향』 2020년 1호(2월호)에 게재한 부분에서 호주부분만을 뽑아 요약·정리한 것이다. 2020년 2월 이후의 기상에 대해서는 본지 지난 호(2020년 9권 2호)와 이번 호(2020년 9권 3호)의 이충식, '주요 곡물생산국의 농업기상 현황'을 참조하길 바란다.

는 평년보다 1~2°C 낮았으며, 최고 기온은 20°C 대~ 30°C 정도로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서호주(WA주)의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2~4°C 높아 동계작물 성숙과 건조를 도왔다.

11월 중하순에는 밀 벨트 대부분에서 2주 연속 건조한 날씨로 밀, 보리, 캐놀라의 성숙과 수확을 촉진하고 있었다. 동호주에는 계속해서 비가 내리지 않아 면화와 수수 조기 수확량 전망이 여전히 좋지 못했다. 서호주는 기온이 평년 수준, 남호주(SA주)와 동호주는 평년보다 2~4°C 높았다. 주요 산불지역인 남부와 동부에서는 주 중간에 최고 기온이 낮은 섭씨 40도 대까지 올라갔는데, 뜨거운 날씨가 강풍과 결합되면서 동계작물 건조를 촉진하기는 하였으나, 험악한 산불을 더욱 부채질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11월 말에는 서호주와 남동호주에서는 대체로 날씨가 건조하여 밀, 보리, 캐놀라의 건조와 수확 작업에 유리하였다. 밀 벨트 내 다른 곳들에서는 약간의 비로 뉴사우스웨일즈 북부와 퀸즈랜드 남부 일부의 가뭄 해소에 다소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수확이 마무리되어가는 단계였기 때문에 밀과 기타 동계작물들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적었다. 이듬해 초까지도 파종이 이루어지는 수수의 경우, 추가 파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지만, 동호주의 대부분 지역의 심각한 장기 가뭄을 종식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2019년 12월 초순에는 동호주에 산발적 소나기가 내려 면화와 수수 생육에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그 지역에도 많은 부분에는 장기 가뭄이 계속되어, 성장 중인 하계작물들에는 건조현상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동호주에서는 동계 곡류와 유지작물들 수확이 계속되었다. 밀 벨트 내에 있는 남호주와 서호주는 전체적으로 건조하여 동계작물 건조를 도와, 밀, 보리, 캐놀라 수확이 촉진되었다.

12월 초·중순에는 퀸즈랜드 남부와 뉴사우스웨일즈 북부 해안구역 광범위한 지역에 내린 소나기로 가뭄이 다소 해갈되었지만, 내륙 깊숙한 주요 하계작물 재배 지역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이 지역의 면화, 수수, 기타 하계작물 수확량 전망치는 계속 좋지 못했다.

하지만, 밀 벨트 내 다른 곳에서는 밀과 기타 동계작물 수확이 촉진되었다. 서호주의 남쪽 먼 곳, 남호주 남동부, 빅토리아에는 수확작물이 남아 있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밀 수확은 종결된 상태였다. 산불과 관련된 금지령 때문에 빅토리아에서는 수확이 중단되었다고 전해졌다. 그렇지만 날씨가 뜨겁고 건조해서 대부분 지역에서는 오히려 수확시기를 앞당겼다.

12월 중순에는 뜨겁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남퀸즈랜드와 뉴사우스웨일즈 북부의 건조지 하계작물은 상태가 대체로 불량하였다. 하계작물 재배 초기이기는 하지만, 동호주의 많은 곳에 피해를 주고 있는 심각한 장기 가뭄은 계속되고 있었다. 밀 벨트 내에 있는 남호주와 서호주는 건조하여 동계작물 수확작업이 끝나가는 상태였다.

12월 말에도 가뭄으로 힘들어하는 남퀸즈랜드와 북뉴사우스웨일즈의 날씨가 계속 건조하여 면화, 수수, 기타 하계작물 수확량 전망이 계속 좋지 않았다. 기온은 높은 30°C 대에서 낮은 40°C 대여서 하계작물의 증발 손실량이 높게 유지되었다. 역으로 남호주는 건조한 날씨 때문에 마지막 동계작물 수확에 도움이 되었지만, 서부 일부에는 소나기가 잠깐 내려 야외작업을 일시 정지되기도 하였다.

2019년 12월 말~2020년 1월 초순에는 남퀸즈랜드와 뉴사우스웨일즈에서 국지성 소나기로 표토 수분이 일부 보충되기도 하였으나, 전반적인 하계작물 전망에 대한 개선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뜨겁고 바람 부는 날씨로 장기 가뭄의 영향은 더욱 악화되어, 면화와 수수의 상태가 계속 나쁜 상태였다. 더욱이 산불 또는 들불은 시골 동호주 일부 등으로 확산되고 있었다.

2020년 1월 초순에도 퀸즈랜드 남부와 뉴사우스웨일즈의 가뭄을 해소시켜주지 못했다. 지나가는 소나기는 가뭄으로 떨어진 면화, 수수 및 기타 하계작물 수확량 전망치를 크게 향상시키지는 못하였다. 주 후반에는 다소 시원한 날씨로 산불이 남호주와 동호주에 국한되는 모습을 보였다.

산불은 2020년 2월 초에 내린 비로 진압되었으나 하계작물 주요 재배지의 가뭄은 해결되지 않았다. 2020년 2월 중순 기준 평균 표토 수분은 평년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2019/20년 하계작물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6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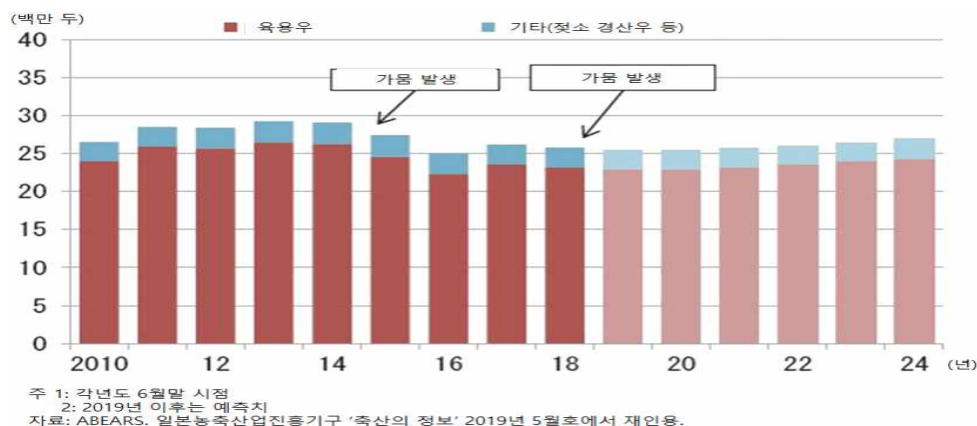
3. 쇠고기 수급 동향과 전망

3.1 육우 사육두수

2014년 이후 가뭄에 따라 호주의 육우 사육두수는 암소를 중심으로 한 도태에 의해 감소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2017년에는 기상조건 회복으로 증가세로 돌아섰

다. 이후 2018년에는 호주의 축산 주산지¹²⁾인 퀸즈랜드주(QLD) 및 뉴사우스웨일스주(NSW)를 중심으로 20년만의 광범위한 가뭄이 발생하였다. 그 영향으로 암소를 중심으로 도축두수가 늘어나게 됨으로써 소 사육두수는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2019년 호주의 소 사육두수는 2,240만 두로 전년 대비 5.9%가 감소하여, 2000년 이후 2번째로 적은 두수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었다(그림 2).

그림 2. 호주의 소 사육두수 동향과 전망



2019년에도 기상조건의 악화로 소 사육두수는 감소하고, 쇠고기 생산량, 수출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성우 도축두수가 가뭄으로 인해 계속 증가하였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소 사육두수는 2019년 7월에 예측하였던 수치와 같은 2,600만 두(전년 대비 7.3% 감소)로 상당한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축두수의 경우에는 주요 육용우 생산지역에서 발생하였던 가뭄으로 암소의 출하보류가 증가하면서, 2019년 7월 예측에서는 다소 상향 조정하여 840만 두(전년 동기대비 6.7% 증가)로 상당한 정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로써 쇠고기 생산량도 237만 6,000톤(전년 동기대비 3.8% 증가)으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0년 이후에도 많은 생산자가 기상조건 회복에 따른 사육두수 확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볼 때, 소 사육두수는 증가 추세를 보일

12) 호주 전체 소 사육두수 중 QLD 주에서 전체의 46.6%, NSW주에서 21.2%를 차지하며, 이 두 주에서 67.8%를 사육하고 있다. 호주의 가축 사육분포에 대해서는 허 덕, 김태련, '호주 쇠고기 생산·수출 동향과 전망', 「해외곡물시장동향」 2020년 4월호 <그림 3>을 참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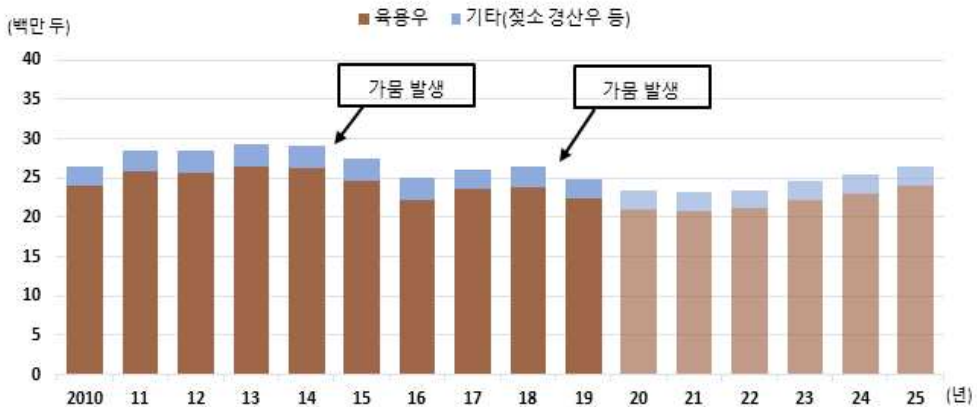
것으로 내다보았다.

육우 사육두수는 기상과 소 거래가격에 크게 좌우된다. 때문에, 2025년 6월 말 시점에서 소 사육두수는 2019년 대비 7.7% 늘어난 2,410만 두로 보고 있다. 하지만, 과거 30년간의 추세를 감안하면 상하 10%(±10%) 정도의 범위에서 증감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3.2 도축두수, 쇠고기 생산량

2018/19년도에는 가뭄에 따라 암소를 중심으로 도태가 진행되면서 육우 도축두수는 838만 두(전년도 대비 5.8% 증가)로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그림 3).

그림 3. 도축두수 및 쇠고기 생산량 추이와 전망



주 1: 각 년도 6월말 시점
 주 2: 2019년은 추정치, 2020년 이후는 예측치
 자료: ABARES

도축두수의 내역을 보면, 숫소는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한 30만 4,000마리였고, 암소는 전년 동기보다 14.4% 증가한 33만 8,000마리로 전년 동월을 크게 웃돌았다.

도축두수 전체에서 차지하는 암소의 비율은 52.7%로, 2018년 4월 이후 그 해 11월을 제외하고는 암소 도축비율이 50%를 넘어 번식 암소 도태에 따른 축군 축소 추세를 계속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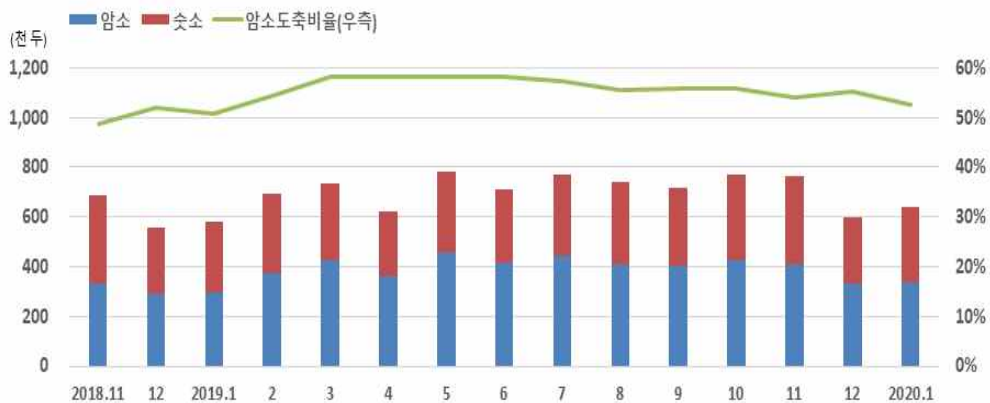
2019년 소 사육두수는 전년보다 감소하였고, 도축두수의 경우에는 주요 육용우 생산지역에서 발생하였던 가뭄으로 암소의 출하보류가 증가하면서 전년보다 10.0% 증가한 870만 두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써 쇠고기 생산량도 235만 2,000톤(전년 대비 5.1% 증가)으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20년 이후에는 많은 생산자가 기상조건 회복에 따른 사육두수 확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볼 때,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았다. 2020년 2월 초까지 지속된 가뭄으로 1분기 소 사육두수는 감소하나, 쇠고기 생산량 및 수출량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작년부터 지속된 가뭄과 산불의 영향으로 성우 도축두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호주통계국(ABS)¹³⁾에 따르면, 2020년 1월 성우 도축두수는 퀸즈랜드 주 중심(QLD 및 뉴사우스웨일즈 주(NSW))으로 발생한 가뭄으로 인한 암소 및 숫소 도태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10.2% 증가한 64만 3천 마리를 기록하였다(그림 4).

그림 4. 호주 성우 도축두수 추이



자료: 호주통계국(ABS)

도축두수는 2018/19년도에는 가뭄에 따라 암소를 중심으로 도태가 진행되면서 838만 두(전년도 대비 5.8% 증가)로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그림 5).

13)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홈페이지 <http://www.abs.gov.au>)

그림 5. 도축두수 및 쇠고기 생산량 추이와 전망



주 1: 2019년 이후는 예측치
 자료: ABEARS,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축산의 정보' 2019년 5월호에서 재인용.

2019년 12월 10일 ABARES의 'Agricultural Commodities'에서는, 2019/20년도(7월~이듬해 6월) 쇠고기 수급 전망을 발표¹⁴⁾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2019/20년도 소 총사육두수는 그동안 가뭄의 영향에서 축군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암소를 중심으로 도태를 계속, 2,350만 두(전년도 대비 5.4% 감소)로 다소 감소하여, 1990년대 초반 이후 최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총 소 사육두수 감소로 소 도축두수는 841만 두(3.4% 감소), 쇠고기 생산량은 225만 9,000톤(3.9% 감소)으로 다소 감소할 전망이라고 발표하였다.

2019/20년도에는 도축두수 감소에 따라 쇠고기 생산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그 뒤에는 도축두수 증가 및 암소도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저하됨에 따라 1마리당 도체중(屠體重)이 증가함으로써 쇠고기 생산량은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¹⁵⁾.

쇠고기 수출 물량은 쇠고기 생산량의 감소로 116만 톤(전년대비 5.0% 감소)으로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였다. 수출 대상국별로 보면, 중국 수출 물량이 지난 전망(2019년 9월)보다 상향 조정되었다. 그동안 호주의 최대 수출 대상국이었던 일본과 순위가 바뀌어, 2019/20년도에는 중국이 최대의 수출국이 될 전망이다.

14)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홈페이지(www.alic.go.jp)의 축산-해외정보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15)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허 덕, 김태련, '호주 쇠고기 생산·수출 동향과 전망', 「해외곡물시장동향」 2020년 4월호 <그림 14>와 관련 내용을 참조하기 바란다.

3.3 육우 가격

가뭄이 심각해지면서 소 사육농가로서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소를 조기에 출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다시 말하면, 수소 이외에도 농가가 경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계속 보유하려고 하였던 암소마저 출하하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암소는 수소에 비해 체중이 다소 가벼운데, 비교적 무게가 가벼운 암소의 출하 증가에 따라 1두당 도체중은 284.2kg로 다소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년에 비해 0.4% 감소한 것이며, 당시 쇠고기 생산량(지육기준)은 20만 3,968톤(전년 동기대비 8.4% 증가)이 되었다.

한편, 에서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영향도 주요한 요인의 하나로 꼽는다. ABARES는 ‘Agricultural Commodities’에서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 1분기까지 쇠고기 국제 및 국내 거래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아시아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많은 국가에서 돼지고기 공급이 부족하게 되어, 세계적으로 돼지고기 수요가 증가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주 요인으로 꼽았다.

돼지고기 대신 쇠고기로 육류 수요가 대체되는 현상으로 호주의 거래 가격은 쇠고기 1kg당 500호주 센트(전년 대비 12.1% 상승, 1호주 달러=79엔 기준, 395엔=4,147.5원)로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림 6. 육용우 가축시장에서의 평균 거래가격 동향과 전망



주 1: 지육중량 기준
 주 2: 2019년 이후는 예측치
 자료: ABARES,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축산의 정보’ 2019년 5월호에서 재인용.

호주 육용우가축생산자사업단(MLA)¹⁶에 의하면, 2019년에는 극심한 가뭄으로 심각한 사료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이와 더불어 이용할 수 있는 수자원이 감소되어 사육하던 축군(畜群)이 줄었기 때문에, 역대적으로도 업계가 경험하지 못했던 해인 것으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해외의 호주 축산물에 대한 수요가 높아 호주 내의 쇠고기 가격은 안정세를 이루고 있었다. 가뭄으로 목초의 생육 상태가 나빠지고 목초비육업자의 수요가 낮아지게 되면서, 호주에서 육우 거래가격의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EYCI 가격¹⁷이 2019년 3월 12일 기준으로 소 도체중 1kg당 385호주 센트(304엔=3,192원)로 떨어졌는데, 이는 2014년 12월 이후 최저가였다. 하지만, 빅토리아 주에 내린 강우로 이후 상승세로 전환, 수 주 내에 500호주 센트(395엔=4,147.5원)를 상회하게 되었다(그림 7).

그림 7. 최근 EYCI 가격 추이



자료: ML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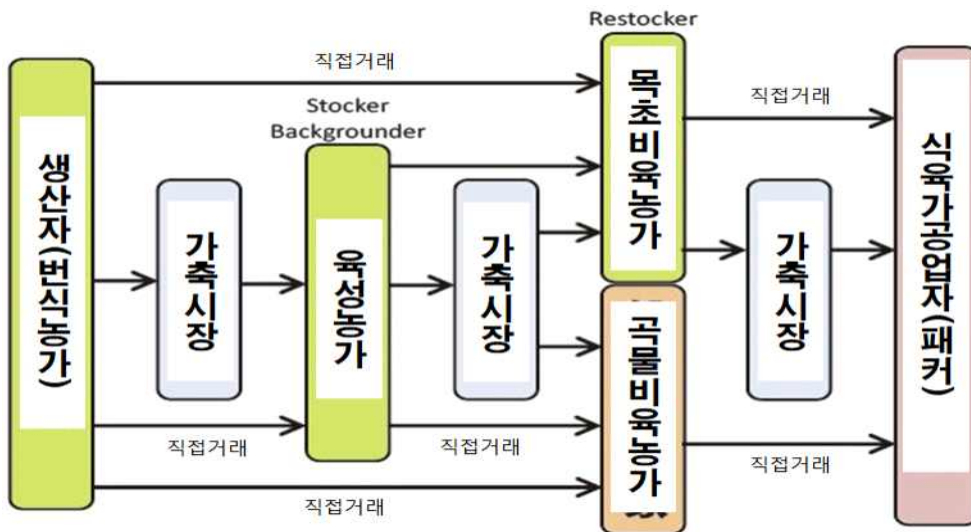
- 16) Meat & Livestock Australia 약칭 MLA. 호주축산공사라고도 하며, 호주의 소, 양, 염소 생산업자들에게 마케팅과 연구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MLA에는 약 50,000명의 축산업자 회원들이 주주권을 가지고 있다.(출처: 호주축산공사 홈페이지: <https://www.trueaussiebeef.co.kr/aboutus/#>)
- 17) 동부지구 미성숙우 지표가격(Eastern Young Cattle Indicator). EYCI는 호주의 일반 소시장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EYCI 지수는 1kg 도체중(屠體重, 또는 정육중량)당 센트(cents/kg cwt)로 표현된 7일 연속 평균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뉴사우스웨일즈, 퀸즐랜드, 빅토리아 주의 26개 세일레이드의 판매 데이터에서 산출된다. 이 지수는 매일 MLA의 축산신고 서비스(NLRS)에서 생산한다. 이에 포함되는 데이터는 vealer, yearling, heifers, steers 등의 가격이며, 스코어 C2 또는 C3, 생체중 200kg 이상의 소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소만 포함된다. 여기에는 도살, 축사보충, 또는 로트피딩 등의 용도로 구입한 소가 포함된다. EYCI는 MLA/SFE(호주축산공사/시드니 선물교환 소 선물계약)의 근거로도 사용된다.(출처: 일본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https://en.wikipedia.org/wiki/>)

2019년 7월 강우로 8월에는 201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게 되었고, 11월에도 국제적으로 늘어난 수요를 배경으로 호주의 쇠고기 가격이 약간 상승하였다. 하지만, 그 때에도 500호주 센트 안팎에서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면서, 2019년 12월 18일 기준으로 EYCI 가격은 483 호주 센트(382엔=4,011원)를 기록하였다.

한편, 국제시장에서는 대미 가공용 쇠고기가격(90CL, FAS¹⁸⁾)를 중요한 지표로 이용하고 있다. 이 가격은 2019년 11월 기준으로 1kg당 968호주 센트(765엔=8,032.5원)로 정점을 찍었다. 그 뒤에도 928호주 센트(733엔=7,695.5원)를 기록하는 등 높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호주 육우·쇠고기 생산의 흐름은 <그림 8>과 같다.

그림 8. 육우, 쇠고기 생산의 흐름도(이미지)



자료: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축산의 정보' 2019년 5월호에서 인용.

18) 90CL(케미칼린)은 적육률(赤肉率 90%의 가공용 쇠고기 벌크 팩, FAS는 호주의 항구의 선측도(船側渡) 가격(price of alongside the ship) 또는 본선인도가격이라고도 한다. 선박이 접안되어 있는 육지 부두와 접한 선박의 부분이나 선박과 접한 육지부분. 해운실무에서는 화물이 선측으로 넘어왔을 때 또는 선측에서 넘어갈 때 누구의 책임과 비용으로 하는지에 따라 가격조건이 결정되며, 그러므로 '선측'은 가격조건이 분기점이 된다.(출처: 선박항해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

3.4 쇠고기 수출

호주는 쇠고기를 일본과 한국 그리고 미국시장에 주로 수출하고 있다. 특히 호주산 쇠고기 수입량이 많은 일본이나 한국은 목초비육에 의한 쇠고기보다는 곡물비육 쇠고기를 선호하고 있다¹⁹⁾. 이에 먼저 호주에서 쇠고기 수출을 위한 사육의 형태인 곡물비육장(feedlot)²⁰⁾의 변화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호주의 경우, 곡물비육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소의 사육두수는 2019년 9월 기준으로 볼 때 7분기 연속 100만 두를 넘는다. 호주 곡물비육장협회(ALFA²¹⁾)와 호주식육가축생산자사업단(MLA)은 분기마다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전국 곡물비육장 사육두수 조사 결과(2019년 7~9월)를 각각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2019년 9월 말 곡물비육장 사육두수는 111만 9,329두(전년 대비 0.7% 감소)로 2016년 10~12월 조사 때 이후 11분기 만에 전년 동기를 하회하기는 하였지만, 7분기 연속 100만 두를 넘어섰다.

또 2019년 7~9월 곡물비육 소의 도축두수는 77만 두로 전년 동기에 비해 3.0%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 기간의 곡물비육 소가 도축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곡물비육 소 도축두수 증가 이상으로 가뭄의 영향을 더 받은 목초 비육우 도축두수가 증가하면서 34.6%에 그쳤다(그림 9).

19) 호주의 쇠고기 수출국별 비중과 곡물비육우의 판매처별 비율에 대해서는 허 덕, 김태련, '호주 쇠고기 생산·수출 동향과 전망', 「해외곡물시장동향」 2020년 4월호의 관련 내용을 참조할 것.
 20) 비육장(feedlot, 肥育場). 울타리를 치고 주로 농후사료를 급여하여 가축, 특히 소를 비육시키는 노천사육장. 육우비육장.(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농업용어사전 농촌진흥청, <https://search.naver.com/>)
 21) The Australian Lot Feeders' Association. ALFA는 호주 소 피드롯(곡물비육장) 산업을 대표하는 최고 전국기관이다. ALFA 회원은 호주 소 피드롯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출처: ALFA 홈페이지: <https://www.feedlots.com.au/association>)

그림 9. 곡물비육우 및 목초비육우 도축두수 추이



주 1: 송아지 불포함.
 주 2: 목초비육우 도축두수는 도축두수 전체에서 곡물비육우 도축두수를 빼서 산출
 자료: ABS, ALFA/MLA,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축산의 정보' 2020년 1월호에서 재인용

MLA에 따르면, 2019년 7~9월 곡물비육 쇠고기 수출량은 8만 1,233톤으로 전년 대비 2.4% 감소하였다. 수출 국가별로 보면, 중국으로의 수출은 ASF(아프리카 돼지열병)발생에 따른 대체 수요에 의해 1만 9,990톤으로 전년 대비 45.2%나 증가하였지만, 한국으로의 수출은 1만 3,973톤으로 전년대비 16.5% 감소하고, 일본으로의 수출 또한 3만 3,518톤으로 전년 대비 14.2% 감소하는 등 상당히 큰 감소폭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LA는 2019년 쇠고기 수출 물량이 과거 3번째로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MLA는 “Industry projections 2020”에서 발표한 2019년 쇠고기 생산량 추정치는 <표 1>과 같다.

표 1. MLA의 육우산업 수급 전망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8월호 전망치, A)	2019년		
				(금번 추정치, B)	전년대비 증감율(%)	전회대비(B-A)
소 총 사육두수(천 두)	27,965	28,052	26,000	26,200	-7	200
소 도축두수 (천두)	7,158	7,873	8,100	8,500	8	400
쇠고기 생산량 (천 톤)	2,130	2,289	2,291	2,408	5	117
1두당 지육중량(kg)	298	291	283	283	-3	0
쇠고기 수출량 (천 톤)	1,015	1,126	1,130	1,229	9	99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8월호 전망치, A)	2019년		
				(금번 추정치, B)	전년대비 증감율(%)	전회대비(B-A)
생우 수출 두수(천 두)	855	1,089	1,150	1,299	19	149

주 1: 소 사육두수는 6월말 시점
 2: 송아지 및 송아지고기 제외
 3: 쇠고기 생산량은 자육베이스, 수출량은 선적증량 베이스

자료: MLA, 'Industry Projections 2019 October Update'.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축산의 정보' 2020년 1월호에서 재인용

호주의 2019년 1~9월의 대(對) 중국 수출량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에 의한 대체수요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73% 늘었으며, 향후에도 대폭 증가를 전망하고 있다. 2019년 8월 중순에는 호주와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SG)²²⁾ 발동 기준인 17만 4,500톤에 이르렀기 때문에 세이프가드가 발동하고, 관세가 12%로 상승하였지만, 중국은 춘절²³⁾(春節, 중국의 설날)을 위해 사전에 재고를 늘리기 때문에 관세 인상은 수요에 큰 영향을 주지 않다고 한다²⁴⁾.

22) safeguard, 약자로 SG.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업계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경우 GATT 가맹국이 발동하는 긴급 수입제한조치이다. 미국과 멕시코 간 무역협정에 규정되었던 면책조항이 모델이 되어 GATT 제19조로 도입됨으로써 국제규범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세이프가드의 유형으로는 수입물품의 수량 제한, 관세를 조정,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시키기 위한 금융 등의 지원이 있다. 예기치 않은 사태가 발생할 경우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GATT 협정을 어쩔 수 없이 위반할 수밖에 없는 사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협정의 준수를 일시적으로 면제해 준다는 의미에서 세이프가드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조항(GATT 제19조)을 '면책조항' 또는 '도피조항(escape clause)'이라고도 한다. 이는 공정무역관행에 의한 정당한 수입을 규제하는 제도이므로, 반덤핑·상계 관세 등 불공정무역을 규제하는 제도보다도 발동요건이 엄격하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내에서도 국내산업 보호를 위하여 '심각한 피해' 등 일정 조건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해 주고 있다. WTO 세이프가드협정에서는, 세이프가드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는데 필요한 정도로만 취해져야 하며, 수입국은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경우 원산지에 관계없이 해당 물품의 수출국에게 협의할 기회를 제공하고 적절한 보상을 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협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당해 물품의 수출국이 수입국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

23) 춘절(春節, Chinese New year). 매년 음력 1월 1일을 중심으로 치르는 중국 문화권의 새해맞이 명절. 음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 날인 설날그믐에는 가족과 친지가 한자리에 모여 만두를 빚고 답십, 생선과 두부 요리, 술 등 명절 음식을 함께 만들어 나누어 먹는다. 중국의 국가 지정 공휴일은 3일이며 지방에 따라 열흘에서 2주, 길게는 한 달까지 쉬기도 한다. 전통적으로 춘절 기간은 음력 12월 23일에 시작해 새해의 음력 1월 15일 원소절까지 거의 한 달간 지속된다. 중국에서는 설날 그믐날 밤에 가족이 모두 모여 식사를 즐긴다. 중국의 춘절 요리는 지방마다 다르지만 만두(饅頭), 팔빡인 두포(豆泡), 떡의 일종인 연고(年糕), 끼니 사이에 먹는 간단한 식사인 답십(點心), 두부(豆腐), 찹쌀로 만든 간식 미화당(美花糖) 등이 공통적으로 장만하는 대표 음식이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세계의 축제·기념일 백과, 류정아, 오애리, 김홍희, <https://terms.naver.com/>)

24) 호주의 쇠고기 SG 발동에 대해서는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축산부문의 해외정보, 「豪州牛肉に特別セーフガード発動(中国)」(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506.html)을 참조할 것.

중국의 수요 증가는 쇠고기 수급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호주의 대미 가공용 쇠고기 가격(90CL, FAS)을 치솟게 하고 있다. 2019년 11월 제2주에는 1kg당 840.6호주 센트로 전년 동기 대비하여 49.9%나 상승하여(639엔=6,709.5원), 1호주 달러=76엔=798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ABEARS의 전망치 발표에 의하면, 2019/20년도에는 생산량 감소에 따라 수출도 감소하지만, 이후에는 생산량 회복에 따라 수출량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출단가는 주요 수출 상대국에서의 경쟁으로 2021/22년도까지 하락세가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2019/20년도 이후에는 일본과 한국시장에서 미국산 쇠고기와 경쟁, 중국시장에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남미산 쇠고기와 경쟁이 격화되어 쇠고기 수출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을 야기할 것으로 보면서, 육우 거래가격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렇지만 가격이 하락한다 할지라도 비교적 높은 가격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가) 일본으로의 수출

2018/19년도에는 쇠고기 생산량은 감소하지만, 일본 수입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2.6% 증가한 32만 톤 정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인구 감소와 낮은 경제 성장률에 따라 일본의 대호주 쇠고기 수요 증가는 한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나) 미국으로의 수출

단기적으로는 미국에서 쇠고기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대미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소 사육두수는 피크에 달하였고, 육우 거래가격 하락도 예상되기 때문에, 2021/22년도에는 대미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다) 중국으로의 수출

호주로서는 중국이 주요 수출 상대국 가운데에서도 가장 커다란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시장이다. 최근 중국 정부는 쇠고기 수입 상대국을 늘려, 호주산보다 저렴한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남미산 쇠고기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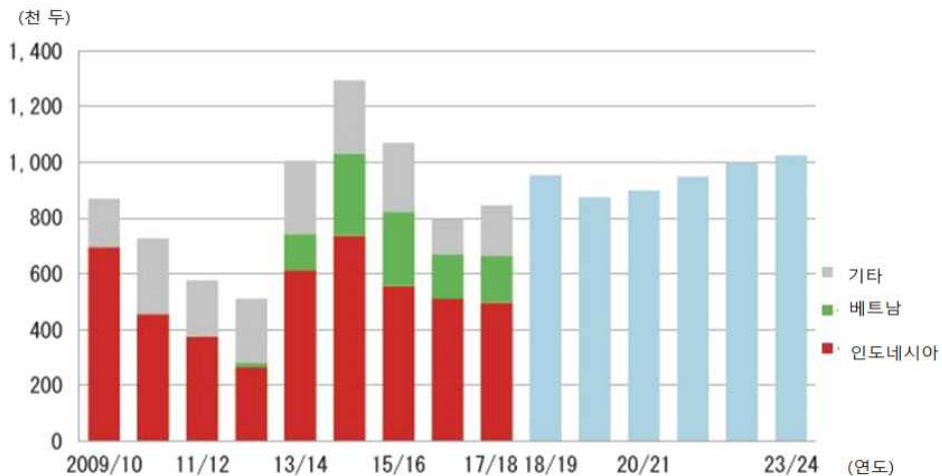
불구하고, 중국의 쇠고기 수입량 전체가 증가하면서 2018/19년도에는 대중국 수출이 증가하였으며, 호주는 중국을 일본, 미국에 이어 3번째 수출 시장국으로 보고 있다. 또 그 후에도 증가 추세를 보이지만, 경쟁 격화로 가격이 저렴한 남미산 쇠고기와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3.5 생우(生牛) 수출

2018/19년도 생우(도축장 직행 소 및 비육 송아지²⁵⁾)의 수출두수는 생체 수출용 육우 주산지인 북부준주(NT), 퀴즈랜드 주(QLD) 북부의 양호한 기상 여건으로 전년보다 27.2% 증가한 112만 5,000두로 추정된다(그림 10).

2019년 1월 말부터 2월 상순까지 QLD주 북부에서 홍수가 발생하였다. 당시까지는 아직 피해의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수 십만 마리의 소가 죽었다고 알려졌다. 이 홍수 피해가 향후 생우 수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

그림 10. 생우(도축 직행 및 비육 송아지) 수출두수 추이와 전망



주 : 2009/10-17/18년도까지는 MLA의 수치. 2018/19년도 이후는 ABEARS 예측치
 자료: ABEARS, 호주식육가축위생생산자사업단(MLA),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축산의 정보' 2019년 5월호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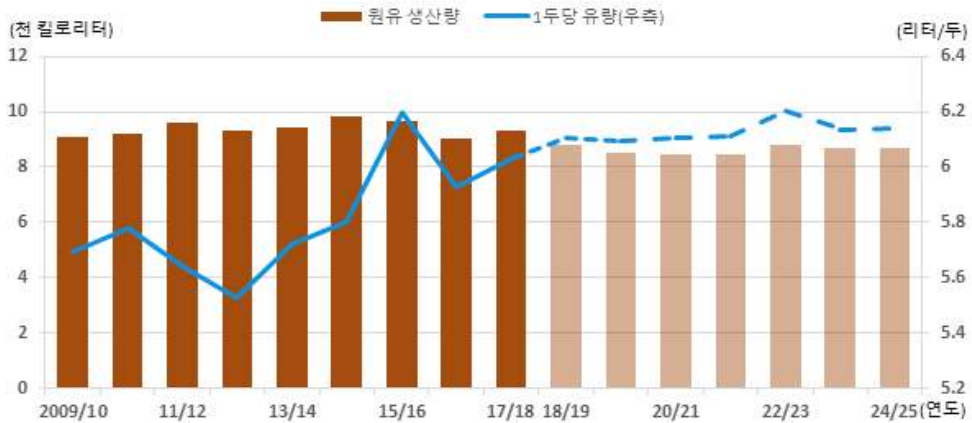
25) 원문에는 소우(素牛)로 되어 있으나 송아지로 번역하였다. 송아지라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송아지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육성우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4. 유제품 수급 동향과 전망

4.1 원유 생산량

호주의 2018/19년도 원유 생산량은 879만 킬로리터(kl)로 907만 톤에 상당할 것으로 추정²⁶⁾되며, 2019/20년에는 853만 킬로리터(879만 톤 상당)로 전망된다. 이러한 원유 생산량은 전년도와 대비하여 각각 5.7%, 3.0% 감소한 것으로, 1995/96년도 이후 23년 만에 900만 kl를 밑도는 수준이다(그림 11).

그림 11. 원유 생산량 및 1두당 유량 추이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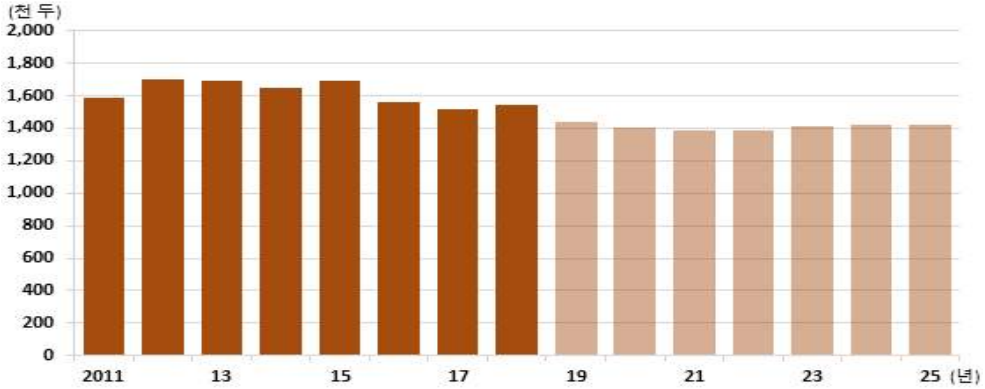


주 1: 각 년도 6월말 시점
2: 2019년은 추정치, 2020년 이후는 예측치
자료: ABARES

이는 호주 동부를 중심으로 한 가뭄으로 사료가격 폭등 및 관개용 취수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상승 등 어려운 경영 환경에서, 낙농가가 젖소를 도태하였기 때문이다. 2019년 6월 말 시점의 젖소 경산우 사육두수는 전년 대비 5.2% 감소한 148만 두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며, 2020년에는 140만 두로 전년보다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12).

26) 우유의 비중은 1.0320~1.0365(15°C)이다.(출처: 네이버 화학대사전, <https://terms.naver.com/>)

그림 12. 젓소 경산우 사육두수 추이와 전망



주 1: 각 년도 6월말 시점
 2: 2019년은 추정치, 2020년 이후는 예측치
 자료: ABARES

2019/20년도 이후 호주는 다른 주요 유제품 수출국과 주 수출국 시장에서 격렬한 경쟁을 배경으로, 생산자 지불 유대는 명목 기준으로는 조금 상승하지만,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한 실질 기준으로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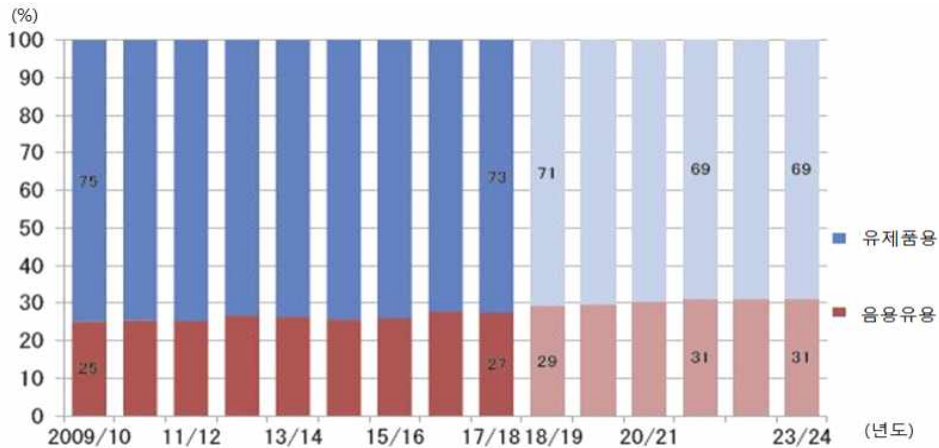
이러한 어려운 경영 환경이 지속되면, 낙농가 증산 의지는 향상되지 않고, 젓소 경산우 사육두수는 보합 또는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보조사료 급여량 증가 등에 따라 1두당 유량 증가는 기대할 수 있겠지만, 원유 생산량은 거의 보합권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2024/25년도 원유 생산량은 900만 킬로리터를 회복하지 못한 채, 2017/18년도 대비 6.6% 감소한 871만 킬로리터(898만 톤 상당)로 지속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4.2 원유의 용도별 이용

원유 생산량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호주 국내 음용유 수요는 이민 등에 의한 인구 증가에 따라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원유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음용유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9/10년도에는 25%였던 것이 2018/19년도에는 28%로 증가하였으며, 2023/24년도에는 30%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그림 13). 즉, 유제품으로 이용되는 원유의 비율은 2023/24년도에는 69%로 70% 선이 붕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제품으로 이용되는 원유량은 2018/19년도 631만

1,000킬로리터에서 2023/24년도에는 606만 6,000킬로리터로 3.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3. 원유의 용도별 비율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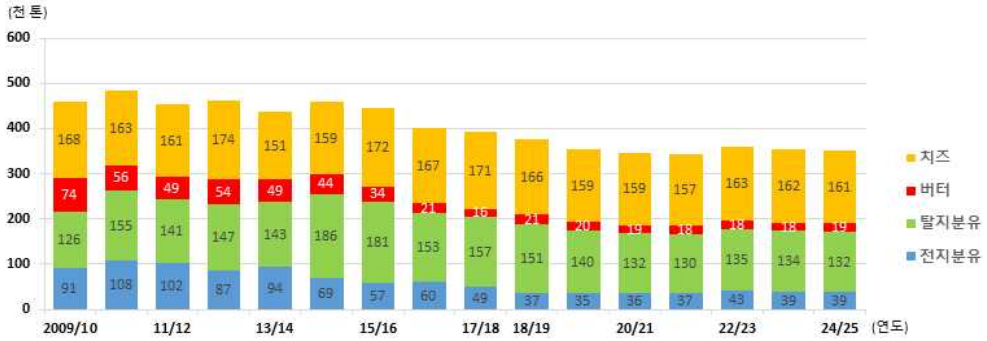
주 : 2019년 이후는 예측치
 자료: ABEARS,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豪州における生乳生産を取り巻く現状と今後の見通しについて', '축산의 정보' 2020년 1월호에서 재인용

4.3 유제품 수출

유제품 주요 4대 품목의 수출 물량 전망은 <그림 14>와 같다. 유제품에 이용되는 원유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많은 유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아, 앞으로 수요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치즈 생산에 주력할 것이라고 보았다.

2019/20년도에는 호주 국내 원유 생산 동향 및 음용유 수요 동향 그리고 해외의 유제품 수요 동향을 보면, 탈지분유가 14만 톤(전년도 대비 7.5% 감소), 전지분유 3만 5,000톤(동 6.6% 감소), 버터 1만 9,000톤(동 8.0% 감소)으로 감소하고, 치즈도 15만 9,000톤(동 4.3% 감소)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림 14. 유제품 품목별 수출량 추이와 전망



주 1: 각 년도 6월말 시점
 주 2: 2019년은 추정치, 2020년 이후는 예측치
 자료: ABA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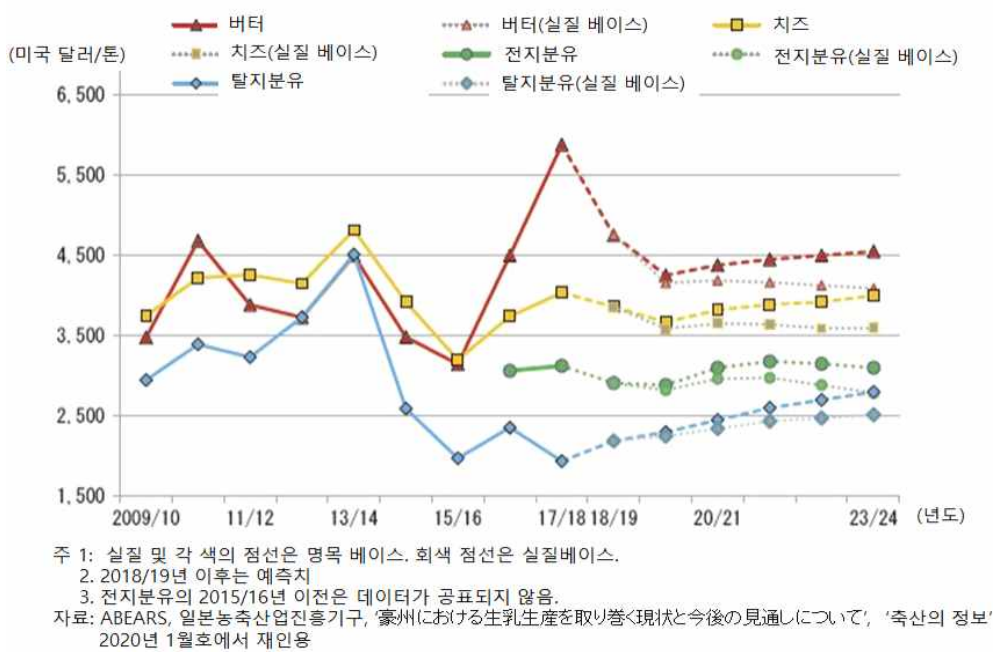
2023/24년도까지는 계속 다른 수출국과 험난한 경쟁에 노출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 생산량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유제품 수출량은 보합 또는 감소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제품 수출액은 2018/19년도 32억 4,900만 호주 달러(2조 9,032.5억 원=2,765억 엔)에서 2024/25년도에는 실질 기준(2018/19년도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물가 상승분을 제거한 수치. 이하 같음)으로 31억 1,100만 호주 달러(2조 5,515억 원=2,430억 엔)로 4.2%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였다.

4.4 유제품 국제가격

2023/24년도까지 주요 유제품 4개 품목의 국제가격 전망을 명목 기준으로 보면, 탈지분유는 2018/19년도 이후, 버터, 치즈 및 전지분유는 2020/21년도 이후 상승세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실질 기준으로는 탈지분유 외의 품목은 하락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그림 15).

그림 15. 유제품 국제가격 추이와 전망



이는 세계적으로 유제품 수요가 증가하지만, 뉴질랜드(NZ), 유럽연합(EU), 미국, 아르헨티나 등 주요 유제품 수출국의 공급량이 증가하여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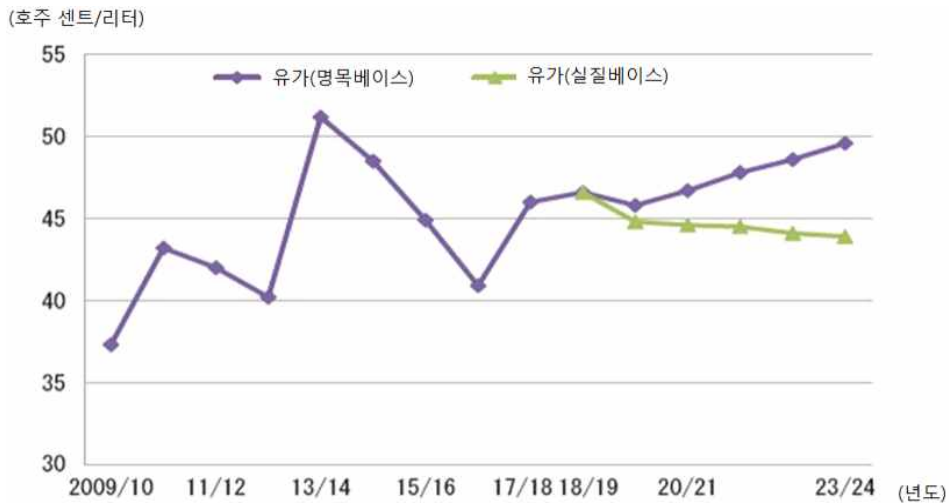
2019/20~2023/24년도 사이, 버터는 실질 기준으로 1톤당 4,000~4,100달러(470만 4,000원~482만 1,600원=44만 8,000엔~45만 9,200엔) 대, 치즈는 3,500~3,600달러(411만 6,000원~423만 3,600원=39만 2,000엔~40만 3,200엔) 대, 전지분유는 2,700~2,900달러(317만 5,200원~341만 400원=30만 2,400엔~32만 4,800엔) 대에서 유지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탈지분유는 지금까지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었으나, 앞으로 개발도상국의 소득 향상에 따라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탈지분유 가격이 상승하여 2023/24년도에는 2,500달러(294만 원=28만 엔) 대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4.5 생산자 지불 유가

호주의 원유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국내의 음용유 점유율이 서서히 증가하면서, 수출용 점유율은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약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호주의 생산자 지불 유가는 유제품의 국제가격 영향을 받기 쉽다. 2018/19년도에는 1리터당 46.6호주 센트(399원=38엔, 전년도 대비 1.3% 하락)로 약간 상승이 예상되지만, 심각한 가뭄에 따른 사료가격 폭등 등 생산비용 증가에 맞추지 못하여 낙농경영은 급속도로 압박되고, 결과적으로 젖소 도태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그림 16).

그림 16. 생산자 지불 유가 추이 및 전망



주 : 2018/19년 이후는 예측치
 자료: ABEARS,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豪州における生乳生産を取り巻く現状と今後の見通しについて', '축산의 정보' 2020년 1월호에서 재인용

2019/20년도 이후에는 다른 주요 수출국인 NZ, EU, 미국, 아르헨티나 등 때문에 계속 어려운 경쟁에 노출되고 있었기 때문에, 명목 기준으로는 약간 상승하지만 실질 기준으로는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았다.

4.6 유제품 수입

원유 생산량이 둔화되고 이민 등으로 인구가 증가하여 유제품 수요가 다양화되는 가운데, 유제품 주요 수출국인 호주에서도 유제품 수입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 2017/18년도 유제품 주요 3개 품목의 수입량을 보면, 치즈 11만 1,000톤(수출 물량 대비 65% 상당), 버터 3만 6,000톤(수출물량 대비 222% 상당), 전지분유 2만 9,000톤(수출물량 대비 60% 상당)으로 상당한 수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버터는 수출량의 2배 이상 수량이 수입되고 있다(표 2).

표 2. 유제품 수입상황(2017/18년도)

단위: 톤

품목	수입량 (1)	생산량 (2)	수출량 (3)	소비량(4)= (1)+(2)+(3)	수출량에 대한 수입량 비율 (1)/(3)×100	소비량에 대한 수입량의 비율 (1)/(4)×100	비고
치즈	111	378	171	318	65%	35%	수입상대국 NZ 57, 미국 28, EU 25
버터	36	92.7	16.2	112.5	222%	32%	
전지분유	29	82.5	48.7	62.8	60%	46%	

자료: ABEARS,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豪州における生乳生産を取り巻く現状と今後の見通しについて', '축산의 정보' 2020년 1월호에서 재인용

ABARES에서는 향후 전망 수치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중기적으로도 지금까지의 추세가 계속되어 유제품 수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5. 축산물 소비 및 유통 관련 최근 이슈

5.1 호주의 건강 지향 고조-헬스 스타 레이팅²⁷⁾, 유기농 식품, 글루텐 프리-

호주에서 비만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²⁸⁾)의 조사²⁹⁾에서도 순위는 서서히 내려가고는 있지만, 2016년 기준으로 보면, 회원국 35개국 중 미국, 칠레, 멕시코 등에 이어 제9위의 비만율을 기록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호주인이 한번에 먹는 음식 분량이 많고, 맥주나 와인을 마시는 빈도가 많다는 점, 패스트푸드, 고기파이, 피시 앤드 칩스 등 고칼로리 음식을 선호하는 식생활 등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최근 계속된 경기 호조로 호주에서는 노동자 임금상승, 생활수준 향상과 더불어 웰빙 경향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도시에는 헬스클럽이 넘치는 오피스 빌딩에 샤워가 설치된 곳도 많으며, 점심시간에는 달리기나 요가, 스포츠를 즐기는 비즈니스맨을 쉽게 볼 수 있다.

식품부문에서도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호주에서는 과거에는 생선이나 김 등 해초를 먹는 습관은 없었지만, 2015년 정도 전부터 '생선은 건강에 좋다'라는 견해가 확산되면서 초밥이나 회와 같은 일본 음식이 '건강한 요리'로서 인기를 얻는 등 기존 식생활에 큰 변화가 생기고 있다.

27) Health Star Rating은 포장된 식품의 전반적인 영양 프로필을 평가하고 별 1개당 1/2개에서 별 5개까지 등급을 부여하는 전면 라벨링 시스템이다. 그것은 유사한 포장 식품을 비교하는 빠르고, 쉽고, 표준적인 방법을 제공한다. 스타가 많을수록 더 건강한 선택이다.(출처: 호주 HSR 홈페이지, <http://www.healthstarrating.gov.au/internet/healthstarrating/publishing.nsf/Content/About-health-stars>)

2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홈페이지 www.oecd.org). 상호 정책 조정 및 정책 협력을 통해 회원국 간 경제사회 발전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나아가 세계경제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부 간 정책연구 및 협력기구이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몰락한 유럽 경제의 극복을 위해 미국의 마셜플랜에 의해 1948년 발족한 유럽경제협력기구(OEEC)를 모태로, 개발도상국 원조 문제 등 새로운 세계정세에 적응하기 위해 1961년 9월 30일 파리에서 발족되었다. OECD가 OEEC와 다른 점은 OEEC가 유럽의 경제회복을 목적으로 한 데 비해 OECD는 서방세계 전체의 경제성장과 세계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회원국 면에서도 OEEC가 유럽국만을 회원국으로 한 데 비해, OECD는 유럽 이외의 미국, 캐나다 등 서방 선진국과 남미 국가를 회원국으로 포함한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

29) OECD 2014년 6월 및 호주 건강 설문 조사 11/12
(자료: 호주 HSR 홈페이지, <http://www.healthstarrating.gov.au/>)

또한, 레스토랑의 메뉴나 소매점 식품에는 헬스 스타 레이팅, 유기농, 글루텐 프리, Non-GMO(유전자변형 작물 무사용), Non-Artificial(식품 첨가물 없음), 채식 주의자(비건, 완전 채식 주의자, 달걀이나 유제품도 먹지 않음)용 등 많은 건강식품 표시가 있다. 또 건강식품 전문점이나 비타민제, 영양제를 판매하는 드러그 스토어 소매점도 많다.

사진 1

시드니 시내에는 피트니스집이 아주 많다.



사진 2

드러그 스토어에서 판매되고 있는 영양보조제



이러한 건강식품에 관한 주요 이슈인 헬스 스타 레이팅 제도와 유기농 식품, 글루텐 프리 식품에 대해서 소개한다.

가) 헬스 스타 레이팅(Health Star Rating, HSR)

호주 정부와 OECD 조사에 의하면, 오늘날 호주는 성인의 63%와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어린이 4명 중 1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만율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³⁰⁾ 호주 정부는 긍정적인 영양소가 더 많고 비만과 음식과 관련된 만성 질환과 관련된 위험한 영양소가 더 적은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균형 잡힌 식단에 기여하고, 더 나은 건강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좋은 식품을 인증해 주는 방법을 고안할 필요성을 느꼈다.

30) OECD 2014년 6월 및 호주 건강 설문 조사 11/12(OECD June 2014 and Australian Health Survey 11/12).(자료: <http://healthstarrating.gov.au/>)

이러한 취지에서 개발된 헬스스타(Health Star) 인증 시스템은 호주, 주 및 지방 정부가 산업, 공공 보건 및 소비자 그룹과 협력하여 개발하였으며, 시스템을 개발한 호주, 주, 지방 정부들이 공동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 시스템은 2014년 6월부터 도입되어 향후 5년간을 기한으로 식품업계의 자발적인 지원 하에 시행되고 있다. 시행 2년 후에는 진행 상황에 대한 검토와 5년 후에는 공식적인 검토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헬스 스타 레이팅은 호주 연방정부³¹⁾가 2015년에 도입한 식품의 영양가를 최고 다섯 개의 별(0.5 조각 단위)으로 평가하는 임의 표시 시스템이다. 표시에는 에너지, 지방량, 설탕량, 염분량, 식물섬유량이 각각 기재되어 있는데, 이들을 종합한 건강도가 ‘별의 수’로 식품 라벨에 표시된다(그림 17).

그림 17. HSR 표시 예



이 표시는 현재까지는 제조자가 자발적으로 비용 없이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식품을 중심으로 표시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다른 일반 식품에도 점차 보급되고 있으며, 호주에 가면 이 표시를 자주 볼 수 있다.

이 제도 출범 시 호주 연방정부와 각 주·준주 정부, 소비자단체, 식품산업 관계자들 사이에서 2년 이상 검토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있었다.³²⁾ 이 제도는 뉴질랜드

31) 연방 정부 공식 사이트

(<http://healthstarrating.gov.au/internet/healthstarrating/publishing.nsf/Content/home>)

32) 2016년에 실시된 경과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방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시행 1년째인 2015년 말 시점에서는 HSR을 채용하는 제품이 363개 제품이었지만, 2년째인 2016년 시점에서는 2,031개 제품에 채용되었다. 또, 많은 업체가 더 높은 별(스타)을 얻기 위해 제품개량에 노력한 결과, 염분이

에도 도입되어 있다.

HSR로 인해 식품 패키지의 성분표시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알기 쉽도록 한 눈에 식품 건강도를 알 수 있다는 편리성 때문에, 식품산업계와 소비자 사이에서 널리 침투되고 있다.

하지만, 당분을 많이 함유한 식품의 영양가가 높지 평가되는 등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도 있다. 앞으로 이 제도에 대한 보급 정도가 조사되고, 도입으로부터 5년 후인 2020년을 목표로 의무화가 검토될 예정이어서, 조만간 이루어질 의무화 검토 결과에 대해 주목이 집중되어 있다.

나) 오가닉(Organic)

오가닉(유기재배)란 화학합성 농약이나 화학비료에 의존하지 않고, 유기비료 등을 이용하여 재배하는 농법을 말한다. 호주에서는 유기농전문점, 전용코너를 가진 슈퍼마켓도 많이 있어 오가닉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최근에는 식품뿐 아니라 화장품이나 생활잡화 등 분야에서도 주목을 끌고 있다³³⁾.

일반적인 오가닉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과거 다년에 걸친 화학물질(제초제, 살충제, 비료, 호르몬제, 착색료, 향료 등)을 생산과정에서 사용하지 않은 것(연수는 인증기관에 따라 다르다).
- 생산, 유통 공정에서 자연환경을 파괴하지 않은 것
- 노동자의 근로 조건을 준수하고 있어야 한다.
- 동물 실험을 하지 않은 것






호주에서는 오가닉 재배식품의 인증에 관해 연방정부와 주정부 등에 의한 규제는 존재하지 않고, 연방 정부가 인정한 오가닉 인증 단체가 독자적 기준을 마련, 운용하고 있다.

나 당분 함유량이 적고 식이섬유 등이 많은 제품이 증가하였다. 또한, 이 리포트에서는 소비자의 HSR에 대한 인지도와 별 마다의 제품 수, 프로모션 캠페인 성과보고, 관계자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 등 수많은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33) 채소 생산자대표 단체인 오스베지(AUSVEG)에 따르면, 호주의 오가닉 상품의 농지는 2015년 이후 23% 증가하였으며, 2016년 시점에서 세계의 유기농 생산품을 생산한 농지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슈퍼마켓의 유기농식품 매출액은 24억 호주 달러(1,944억 엔=2조 412억 원)에 이른다. 또한, 채소뿐만 아니라 쇠고기와 유제품, 주류, 더 최근에는 콜라 등 청량음료 등 폭넓은 분야에서 유기농 제품이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오가닉 쇠고기 시장규모는 5억 6,400만 호주 달러(456억 엔=4,788억 원)으로 유기농 제품 전체 중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량은 가공 식품에 이어 제2위이다.

생산자·식품 제조업체들은 임의(유료)로 인증 단체가 실시하는 심사를 받고, 심사를 통과한 제품에 인증마크를 붙일 수 있다는 구조이다. 인증기준으로는 위와 같이 과거 일정 기간에 걸쳐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농지에서 생산된 원료를 사용한 것, 생산공정에서 비오가닉 원료 혼입이 없는 것 등 단체에 따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각 인증단체 심사를 통과한 제품은 해당 단체에서 발행하는 오가닉 표시를 할 수 있다. 호주 농업수자원부(Department of Agriculture, Water and the Resources, DAWR)³⁴⁾가 인정하는 단체는 아래 <표 3>의 5개 단체이다.

표 3. 호주의 오가닉 인증단체

	Australian Certified Organic (ACO)
	NASAA Certified Organic
	Organic Food Chain
	AUS-QUAL
	Bio-Dynamic Research Institute (BDRI)

자료: DAWR.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豪州の農畜産物需給見通し-2019年豪州農業需給観測会議から-, 「축산의 정보」 2019년 5월호에서 재인용.

또한 상기의 인증기관에 의한 인증을 얻어 발행된 오가닉 표시 이외에도 기업 자체 기준에 따라 제조된 ‘자칭 오가닉’ 식품도 유통되고 있다. 예를 들면, 농약을 사용한 식품이라도 상품 이미지를 제고를 위해 ‘오가닉’으로 표시된 상품도 존재한다. 소비자에게 지식이 없을 경우, 상기 ‘인증 오가닉’과 ‘자칭 오가닉’의 차이를 모르고 ‘인증 오가닉’으로 혼동하여 구매하였지만, 실제로는 보통 ‘제품이었다’라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일부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34) 현재는 Department of Agriculture, Water and the Environment, DAWE, 웹사이트 (<https://www.agriculture.gov.au/>)

다) 글루텐 프리

글루텐은 밀, 보리, 연백 등 곡물에 포함된 단백질의 일종으로, 셀리악병³⁵⁾ 환자가 섭취하는 경우에 컨디션 불량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 셀리악병은 글루텐에 대한 면역반응이 원인으로 일어나는 자기면역질환으로, 호주 성인의 2% 가량이 이 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이러한 증상의 완화를 위해 등장한 글루텐 프리 제품인데, 최근에는 유명 배우나 모델 등이 미용과 건강을 위해 생활에 적용하여 화제가 되었다. 현재는 식생활 스타일의 하나로 일반에 정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글루텐 프리 제품에는 두 가지 패턴이 존재한다. 하나는 원래 글루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원료로 만든 상품으로써, 컨테미네이션(contamination, 제조 라인 등에서 알려지 물질 혼입)도 없는 것을 말한다.

다른 하나는 통상 글루텐이 포함되어 있는데, 원료를 변경함으로써 글루텐이 포함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면, 글루텐 프리 간장의 경우에는 밀 대신 쌀을 사용하고 있다. 원료나 유통량 차이로 판매가격은 글루텐이 들어간 상품보다 10~20% 정도 높지만, 소비기한 및 보존방법 등에 큰 차이는 없다.


또한 셀리악병 환자가 글루텐 프리식을 섭취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그 효과가 인정되지만, 일반 소비자까지 유행이 퍼졌다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전문가에 의하면, 글루텐 프리식사는 통상 식사보다 비용이 17% 높은 미량 원소와 비타민이 부족할 우려 외에, 혈압, 콜레스테롤, 체중 증가로 인한 심장발작과 뇌경색 발생의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는 등, 열기가 과열되어 있는 한편에는 법 정비³⁶⁾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의학적 근거도 부족하다는 등의 문제점도 많다.

35) 셀리악병(celiac disease). 소장에서 일어나는 알레르기 질환으로, 장 내의 영양분 흡수를 저해하는 글루텐에 대한 감수성이 일어남으로써 증세가 나타난다. 이 질환은 대부분 생후 2주의 유아에서부터 1년 정도의 어린이에게서 시작되며, 드물게는 성인이 된 후에 처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위험인자는 가족 중에 셀리악병에 걸린 사람이 있는 경우와 임신 및 다른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경우 등이며, 대부분 유전된다. 보통 글루텐이 함유된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으며, 2~3주 정도면 증세가 호전되기 시작한다. 증세는 밀가루 음식을 먹기 시작한 유아의 경우에 체중감소 또는 체중증가가 서서히 나타나며, 식욕저하가 일어난다. 배설물이 묽고, 색이 옅으며, 양이 많고, 나쁜 냄새가 나며, 자주 방귀를 킂다. 또한 배가 부풀어 오르거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 영양이 부족한 상태로 보이며, 입안에 궤양이 생긴다. 피로하거나 창백해 보이는 얼굴, 피부 발진, 뼈의 통증 등 빈혈이나 비타민 결핍증이 나타나며, 어린이의 경우에는 다리가 약간 휘기도 한다. 드물게는 글루텐을 섭취하지 않는데도 증세가 나아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치료법은 우선 글루텐이 함유된 식품의 섭취를 중단한다. 그 다음에는 빈혈 치료를 위한 철 및 엽산 함유 제제나 칼슘과 복합비타민 함유 제제 등을 복용하고, 심한 경우에는 염증 반응을 감소시키기 위한 코티손계 약물을 경구 투여한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search.naver.com/>)

36) 글루텐 프리의 표시에 관해서는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기관(FSANZ)의 알레르겐물질 표시규제가

호주에서 글루텐 프리 관련 단체 등은 다음과 같다.

표 4. 글루텐 프리 관련 단체

	<p>Coeliac Australia 셀리악병 환자를 위한 전 호주 규모의 비영리단체. 이 단체에 의하면, 전 호주에서 셀리악병 환자로 진단된 사람의 수는 약 2만 5,000명.</p>
	<p>Gluten Free Expo 연 1회, 전 호주 4개 도시에서 개최되는 글루텐 프리 최대 전시회.</p>
	<p>Gluten Free Eating Directory 2008년 시작한, 레스토랑의 글루텐 프리 메뉴를 검색할 수 있는 WEB 서비스</p>

출처: 각사 홈페이지.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豪州の農畜産物需給見通し-2019年豪州農業需給観測会議から-, 「축산의 정보」 2019년 5월호에서 재인용.

5.2 시드니에서의 일본산 와규(和牛)³⁷⁾의 유통 상황

시드니 중심부에서 차로 20분, 시드니 공항 주변의 도매시장 일각에 위치한 ‘라이트 더 부처즈’를 찾아 사장인 라이트 클레이턴 씨에게 이야기를 들었다.

2018년 5월 일본에서 호주행 쇠고기 수출을 재개³⁸⁾한 이 회사는 호주 수입 재개 이후 첫 일본산 와규고기 수입자이다.

이 회사는 식육 대형 도매업자이며 호주산 Wagyu를 포함한 쇠고기 조달, 수출

적용된다.(<http://www.foodstandards.gov.au/consumer/foodallergies/pages/allergen-labelling.aspx>). ‘글루텐 프리’라고 라벨에 표시하는 경우 일체의 글루텐이 검출돼서는 안된다. ‘저 글루텐’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글루텐 함량이 200ppm 미만(0.02% 미만)만 가능하지만, 셀리악병 대책으로서는 효가가 적어, 호주에서는 그다지 저글루텐 카테고리에 포함되는 제품은 보이지 않는다.

37) 일본 소인 화우(和牛)의 영어 표기가 wagyu인데, 구분을 위하여 일본산은 와규, 호주를 비롯한 일본 이외 국가산 화우종은 wagyu로 표기하도록 한다.

38) 일본산 쇠고기는 2001년 9월 소 해면상뇌증(BSE)발생 이후 17년간 호주로 수출이 중단되었지만, 일·호 두 정부 간 협의의 결과, 2018년 5월 29일 일본후생노동성이 정하는 절차에 기초하여 인증을 받은 시설부터 호주로의 수출이 가능해졌다. 또한, 호주 측은 일본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데 있어서 호주 검역당국으로부터 수입허가증 발행을 받을 필요가 있다.

입을 하고 있다. 또한 호주에서 처음으로 스페인에서 생햄(하몽³⁹)을 수입한 것도 이 회사이다.

이 회사는 타사에 앞선 2018년 7월 수입 허가증 발행을 받은 뒤, 첫 번째 배로 카고시마 현산(鹿児島県産) 와규를 1톤 정도 수입하였다. 일본 식육기업을 통해 수입한 첫 번째 배는 모두 A5 또는 A4등급⁴⁰ 서로인⁴¹, 텐더로인⁴² 등 고급 부위가 중심이었다. 판매가격은 1kg 당 200호주 달러(17만 100원=1만 6,200엔) 선에서 호주산 Wagyu의 3~5배 정도 고가였지만, 곧바로 호주 각지 고급 레스토랑, 호텔 등에 판매되었다. 사무소 겸 가공실에는 일반 소비자도 구입 가능한 직매점도 병설되어 있다. 라이트 사장에 따르면, ‘일본산 화우를 다루면서 호주산 Wagyu

39) 하몽(Jamon). 하몽은 돼지 뒷다리의 넓적다리 부분을 통째로 잘라 소금에 절여 동굴과 같은 그늘에서 곰팡이가 피도록 약 6개월에서 2년 정도 건조·숙성시켜 만든 생햄이다. 스페인의 대표적인 생햄으로 19세기경부터 성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몽은 열을 가하지 않고 서늘한 그늘 아래에서 오랜 시간 말릴 때 제대로 된 맛이 나는데, 보통 1년 정도의 건조와 숙성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오랜 시간 동안 변하지 않고 그 맛을 유지하는 특징이 있다. 하몽 자체를 얇게 잘라 먹기도 하며, 샌드위치와 같은 음식에 곁들여 먹기도 한다.

하몽은 흰돼지로 만든 하몽 세라노(Jamon Serrano)와 흑돼지로 만든 하몽 이베리코(Jamon iberico)가 있는데, 하몽 세라노는 하몽 이베리코보다는 낮은 등급으로 6~12개월 정도 숙성시켜 만든다. 하몽 이베리코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국경지대에 위치한 산간지방의 이베리아종 흑돼지로 만든 것으로, 이 지역의 돼지는 산악지대에 방목하면서 도토리만 먹고 자라 다른 지역 돼지에 비해 근육층이 발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건조하고 추운 지방에서 만들어 다른 하몽에 비해 숙성 기간이 2배 이상 많이 걸리기 때문에 육질이 쫄득하면서도 질기다.

하몽 이베리코는 돼지에게 먹이는 사료의 종류에 따라 이베리코 데 데세보(Iberico de decebo), 이베리코 데 레세보(Iberico de recebo), 이베리코 데 베요타(Iberico de bellota) 3가지 등급으로 분류한다. 곡물 사료를 먹고 자란 흑돼지로 만든 것을 데세보라 하여 가장 낮은 등급으로 치고, 도토리만을 먹인 흑돼지로 만든 것으로 베요타라고 해서 가장 최고 등급으로 여긴다. 특히 하몽 이베리코 중에 돼지발톱이 까맣게 되어 ‘검은 발’이라는 뜻의 ‘파타 네그라(pata negra)’라고 불리는 하몽이 최상급으로 여겨지는데, 파타 네그라에는 다른 하몽에는 없는 비타민 B와 E가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페인 여러 지역에서 하몽 이베리코가 생산되지만 에스트레마두라(Extremadura)와 안달루시아(Andalusia) 지방에서 만든 것을 최고로 여긴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search.naver.com/>)

40) 일본의 와규 쇠고기 등급체계는 육량등급 A, B, C 3등급과 육질등급 1등급부터 5등급까지 5개 등급으로 나누어지는 데, 우리나라와는 달리 육질등급은 숫자가 높을수록 품질이 좋은 쇠고기이다.(자료: 농촌진흥청, 「주요국의 육류등급제도」, 1998.8.)

41) sirloin. 소 지육의 부분육의 명칭으로 스트립 로인(strip loin)이라고도 부른다. 등심의 제1 요추부터 제6 요추 사이에 상당하는 부분이다. 가슴 최장근으로 섬유질이 곱고 육질이 부드럽다. 쇠고기의 부위 중에서는 육질이 가장 좋다. 근내지방이 적절히 들어간 것은 풍미도 뛰어나고 주로 스테이크용 고기로 이용된다. 고기 부위는 로인(loin. 허리고기)이지만, 맛이 좋은 점에서 sir이라고 했다. 지방이 적어서 스테이크(steam), 로스트, 불고기에 적합하다. 영국의 찰스II세가 즐겨먹던 고기로서 이 스테이크는 남작의 작위를 받을 만큼 훌륭하다 하여 Loin에 Sir를 붙여 Sirloin이 되었다고도 한다.(출처: 네이버 지식사전 두산백과, <https://search.naver.com/>)

42) Tenderloin. 쇠고기 부위 중 인기가 높으며 스테이크로 이용되고 있다. Chateaubriand는 소의 등뼈 양쪽에 붙어 있는 가장 연한 안심의 머리 부분을 말하며, Filet는 안심 스테이크로 이용한다. Tournedo는 필렛 앞쪽 끝 부분을 잘라 베이컨을 말아 구워낸 것이며, Filet Mignon은 필렛 뒤쪽 끝 부분을 잘라 베이컨을 말아 구운 것이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조리용어사전, <https://search.naver.com/>)

와 일본산 와규의 샘플을 비교 검토하였지만, 일본산 와규는 마블링⁴³⁾과 육질, 맛 등 품질 면에서 차이가 확연하여 아주 높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차별화가 된다고 판단하였다'고 말한다.

첫 번째 배편의 판매가 호조를 띠자, 그 후에도 일본산 와규는 계속적으로 수입되고 있다. 라이트 사장은 '일부에는 호주 국내 Wagyu업계에 영향을 우려하고도 있지만, 원래 품질, 가격이 다른 두 제품은 공존이 가능하다. 호주의 소비자, 특히 부유층에게 최고 품질의 일본산 와규를 제공함으로써 호주산 Wagyu가 최고 품질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게 된 것이다. 품질에 대해서 적절한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소비자 이익으로 이어질 것이다. 수입 재개 당초에는 새로움이라는 이미지로 순조로운 판매세를 보였지만, 부유층 사이에서 본격적으로 정착하려면 꾸준한 프로모션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사진 3

사무소겸 가공장 외견



사진 4

직매장의 고기



사진 5

카고시마현 산 스트립로인(서로인).
1kg당 213달러



사진 6

창고에 쌓여있는
일본산 화우



43) 고기 안에 서리가 내린 모양이라 하여 상강도(霜降度)라고도 한다.

6. 맺음말

호주에서는 동부를 중심으로 발생한 가뭄으로 인해 암소도태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쇠고기 생산량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소 사육두수는 2019/20년도에도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쇠고기 수출 물량은 2019/20년도에는 줄었지만, 중국으로의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국의 왕성한 쇠고기 수요로 인해 증가할 전망이다.

쇠고기 생산에서는 현재에도 이전의 가뭄에 따라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는 소 사육두수 감소에 따라 생산 감소가 예상되면서, 가뭄 발생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피드룻이 가뭄에 따른 목초부족의 영향을 완화시키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곡물 수확부진으로 인해 사료가격이 크게 상승하였고, 비용증가가 수익을 압박하고 있다. 향후 호주 쇠고기업체의 우려 사항으로는 (1) 기상악화와 육우거래 가격 하락에 따른 소 사육두수 더욱 감소, (2) 중국시장에서 남미산 쇠고기와 경쟁 심화, (3) 퀸즈랜드 주(QLD)의 홍수로 인한 생우 수출 차질을 꼽았다.

호주의 원유 생산량은 2018/19년도에는 가뭄으로 인해 상당히 줄었으며, 2019/20년도에도 이후에는 해외 유제품시장에서 수출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인 생산자지불 유대는 저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낙농가 증산의지는 향상되지 않아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할 전망이다. 한편, 호주 국내의 우유·유제품 수요는 인구 증가에 따라 확대될 전망이다, 유제품 수출 물량은 부가가치가 높은 치즈를 제외하고는 감소할 전망이다.

원유 생산에 대해서는 가뭄에 따른 생산 감소에 이어 앞으로도 생산자 지불 유가 상승이 예상되지 않아, 원유 생산 증가는 예상되지 않는다. 한편, 인구 증가에 따라 국내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수출용 유제품 생산이 감소하여 수입 증가가 전망되고 있다.

향후 호주 낙농유업체의 우려 사항으로는 (1) 일·EU 경제연대제휴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⁴⁴)에 의한 일본 치즈 시장의 경쟁 심화, (2) 미국

44) 경제(연대)제휴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자유무역협정(FTA)와 같이 관세철폐와 비관세장벽 인하 등 통상상 장벽 제거뿐만 아니라, 체결국간의 경제거래 엔활화, 경제제도의 조화 미커서비스·투자·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경제영역에서의 제후II 강화·협력 촉진 등을 포함하는 조약이다.(출처: (일본)フリー百科事典『ウィキペディア (Wikipedia)』, <https://ja.wikipedia.org/wiki/>)

과의 무역전쟁이 중국 유제품 시장에 미치는 영향, (3) 호주 낙농유업계의 ‘행동규범’ 대응이 꼽힌다. 행동규범 추진에 대해서는, 낙농가와 유업체의 원유 거래에서 양측 간 힘의 균형을 적절하게 하고, 낙농인의 입장을 더욱 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호주 정부가 법제화를 위해 검토하고 있다.

TPP11협정⁴⁵⁾에 의해 호주로부터 일본으로 수출하는 쇠고기와 유제품에 관한 단계적 관세 삭감이나, TPP 쿼터 설정이 이루어져, 호주 축산물 생산 동향에 관심이 쏠리지만, 쇠고기, 유제품 모두 단기적으로는 생산 증가가 예상되지 않으며, 수출 여력도 한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호주 축산 상황의 변화는 곡물 수요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개략적인 방향성만 보면, 앞으로 가뭄, 산불, 홍수 등으로 인한 육우와 젖소 사육두수를 회복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기상상황 악화에 의해 곡물 생산에도 커다란 차질을 빚은 바, 당장은 사료곡물 국내조달이 어려울 것이다. 즉, 2020년도 전반까지는 호주가 곡물 수출량이 줄어 국제 곡물가격 상승의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음 곡물년도부터는 기상상황만 양호하다면 즉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곡물의 국내수요 중 사료곡물 수요는 가축두수가 회복되는 데 소요되는 기간만큼 서서히 증가하여, 앞으로 당분간 호주의 곡물 수출 가능량은 많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는 국제 곡물시장에서 가격 하락의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국제 곡물시장에서 곡물을 수출하는 각 국가들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호주가 곡물 수출대국인 만큼 당분간 호주 축산이 회복할 때까지는 국제곡물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보다 면밀한 관심이 요구된다.

45) 환태평양 파트너십 협정으로 통칭 또는 약칭으로 TPP11이라 한다. 기초(起草)는 2015년 10월 5일, 서명은 2016년 2월 4일 오클랜드에서 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으로는 가맹국간 관세철폐, 투자가 대 국가의 분쟁해결·지적재산권(특허·저작권 보호기간 등)·투자에 관한 규칙(rule) 등 이다. 2016년 1월 26일에 조문이 공개되고, 참가국 12개국 2월 4일에 서명하였다. 교섭 참가국 12개국 중 미국은 2017년에 탈퇴하였으며, 미국 이탈 후, CPTPP와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TPP12」라 통칭하기도 한다. 참가국 11개국 중 멕시코(2018. 6. 28.), 일본(2018. 7. 6.), 싱가포르(2018. 7. 19.), 뉴질랜드(2018. 10. 25.), 캐나다(2018. 10. 26.), 호주(2018. 10. 31.), 베트남(2018. 11. 15.) 등 7개국은 서명이 완료되었으며,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페루, 칠레 등 4개국은 2018년 11월 15일 현재 아직 서명하지 않은 상태이다.(출처: 일본농무성, www.maff.go.jp). 호주의 TPP11에 고나한 구체적인 내용은 허 덕, 김태연, ‘호주 쇠고기 생산·수출 동향과 전망’, 「해외곡물시장동향」 2020년 2호(2020년 4월호)를 참조 바란다.

참고문헌

- 농촌진흥청, 「주요국의 육류등급제도」, 1998.8.
- 이충식, '주요 곡물생산국의 농업기상 현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동향」 2020년 2월호(9권 1호), 4월호(9권 2호) 및 6월호(9권 3호)
- 허 덕, 김태련, '호주 쇠고기 생산·수출 동향과 전망', 「해외곡물시장동향」 2020년 4월호
-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호주, 가뭄 영향으로 7월 생산량 전년 동월 대비 4.2% 감소', 「축산의 정보」 2018년 11월호
-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축산 해외정보, 「豪州牛肉に特別セーフガード発動(中国)」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506.html)
-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豪州における生乳生産を取り巻く現状と今後の見通しについて」, 「축산의 정보」 2020년 1월호
-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豪州の農畜産物需給見通し-2019年豪州農業需給観測会議から-」, 「축산의 정보」 2019년 5월호
- 한국경제신문 2020년 2월 10일자 기사, '호주, 산불 가니 홍수 피해...12만 가구 정전'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0021028057>)
- 나우뉴스 2020년 2월 8일자 기사, '최악 홍수, 시드니서 바다에서 떠밀려온 상어 포착',
<https://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210601002>)
- 일본농무성 홈페이지(<http://www.maff.go.jp>)
- 호주 통계국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홈페이지(<http://www.abs.gov.au>)
- 호주축산공사 홈페이지(<https://www.trueaussiebeef.co.kr/aboutus/#>)
- ALFA 홈페이지(<https://www.feedlots.com.au/association>)
- 호주 HSR 홈페이지(<http://www.healthstarrating.gov.au/internet/healthstarrating/>)
- DAWE, 웹사이트(<https://www.agriculture.gov.au/>)
- 호주·뉴질랜드FSANZ 홈페이지.(<http://www.foodstandards.gov.au/consumer/>).
- 일본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https://en.wikipedia.org/wiki/>)
- 네이버 지식백과 농업용어사전 농촌진흥청(<https://search.naver.com/>)
-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https://terms.naver.com/>)
- 네이버 지식백과 세계의 축제·기념일 백과, 류정아, 오애리, 김홍희
(<https://terms.naver.com/>)
- 선박항해용어사전(<https://terms.naver.com/>)
- 네이버 화학대사전(<https://terms.naver.com/>)
-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https://search.naver.com/>)
- 네이버 지식백과 조리용어사전(<https://search.naver.com/>)
- MLA, 'Industry Projections 2019 October Update'

OECD 2014년 6월 및 호주 건강 설문 조사 11/12(OECD June 2014 and Australian Health
Survey 11/12)